증오범죄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고찰*

김 혜 정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 주 혁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기

< 목 차 >

Ⅰ. 들어가는 말
Ⅱ. 증오범죄의 정의
Ⅲ. 증오범죄의 유형
Ⅳ. 증오범죄의 원인
Ⅴ. 증오범죄에 대한 예방가능성
Ⅵ. 결론에 대신하여-예방 가능성을 위한 앞으로의 방향

Ⅰ. 들어가는 말

최근 TV 뉴스, 신문기사 혹은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살인·방화·테러 등의 소위 증오범죄에 관한 소식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비난하며 잠시 의문을 갖곤 한다. "그들은 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가?", "그들은 왜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살해한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쉽게 그러한 증오범죄가 우리 자신과는 무관한 일인 것처럼 의문을 거둬들인다. 그렇게 우리는 증오범죄에 대해 체념적 혹은 수용적인 태도로 TV나 신문 속의 일로 여기곤 한다.

* 투고일 : 2013.5.15, 완료일 : 2013.6.15, 게재확정일 : 2013.6.24

그러나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증오범죄를 '방지할 방법이 없는 사회문제' 정도로 여기면서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우리 중 누군가 또 그러한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그러한 범죄는 영원히 피할 수 없는 마치 일종의 천재지변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인간의 편견과 증오가 만들어낸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해 온 증오범죄는 그 행위태양의 잔인성과 법익침해가 중대한 범죄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종의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이곤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이는 원인과 결과가 비교적 정형적인 다른 범죄들과 비교하여 증오범죄는 개념정의나 유형 혹은 원인에 대한 고찰이 상당히 어렵고, 예방이나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인식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증오범죄에 대한 체념적·수용적 태도를 버리고, 증오범죄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우리나라의 사례들이 갖는 증오범죄의 유형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그 원인과 예방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글에서는 먼저 증오범죄의 정의에 대해 살펴본 후 증오범죄의 유형, 특히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증오범죄의 실태를 통해 구체적인 유형에 대하여 살펴본 후, 증오범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검토해봄으로써 그 예방가능성에 대한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II. 증오범죄의 정의

1. 증오의 개념

증오범죄에 대하여 정의하기에 앞서 증오라는 개념에 대해 우선 살펴본다면, 증오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인간의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으로서 일정한 행위태양을 직접적으로 표상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감성적 언어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증오범죄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지속되어 왔지만, 증오범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해야 하는지라는 문제가 먼저 증오라는 감정이 나타내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확실한 정의 없이는 어렵다는 이유에서 증오에 대한 개념정의는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1]

---

1) Jack Levin, The violence of hate : confronting racism, anti-semitism, and other forms of bigotry, Allyn and Bacon, chapter 1 perspectives on Hate and violence, 2002(임미혜, 불특정다수를 향한 증오범죄의 원인에 대한 연구,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11면에서 재인용).

증오범죄의 개념 내지 그 범위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우익 폭력이나 외국인을 증오하는 폭력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단순히 종교적 폭력만을 포함하고 있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미국에서는 흑인을 증오하는 백인우월주의자들을 기술하는데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종교적·성별적·성지향적·민족적·신체장애적 문제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2)]

이처럼 증오 범죄라는 개념 자체가 포함하는 범죄행위들은 매우 다양하고, 문화적·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상대적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죄'라고 여기는 전형적인 경우들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증오범죄의 다양한 행위 유형들이 특정 범죄의 일정한 행위태양으로 포섭하기에는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증오범죄의 유형들을 '증오'라는 개념으로 포괄하는 이유는 증오범죄로 행해지는 다양한 행위태양들의 기저에 인간의 심리적 요소로써의 '증오'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증오범죄의 행위동기나 목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증오는 인간이 가지는 슬픔이나 분노 등의 일반적인 감정체계와는 차이가 있는 독특한 감정형태이다.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고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내리기 보다는 증오라는 개념이 갖는 특징들을 기술하는 것이 증오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3)]

증오는 감정의 일종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슬픔, 분노 등과 같은 본능적인 감정과는 다른 위상을 가진 일종의 가치체계라 볼 수 있다. 즉 증오는 슬픔 혹은 분노 등의 본능적 감정을 근본으로 형성된 개인 혹은 집단의 가치체계이다. 따라서 증오는 감정적인 개념이면서 동시에 가치체계이기도 한 것이다. 예컨대 보통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유 없는 적개심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과는 다른 문화적 특색을 가진 집단에 대한 불편함, 자신과 다른 성별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 등을 의외로 쉽게 형성하곤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와 같이 형성된 부정적 감정에 대한 해소방안에 있어, 사람은 자신에 대한 일종의 정신적 보호 기재로써 그러한 부정적 감정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동양식(혹은 대응방식)을 구축하게 되는데, 그러한 행동양식의 방향이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반사회적인 방향으로 구축된 경우가 바로 증오이다. 나치의 유태인 대학살과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히틀러의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내적으로 형성된 유태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들의 해소를 위한

2) 이윤호, 현대사회와 범죄의 이해, 삼경문화사, 2004, 80면; 임미혜, 앞의 논문, 12면 이하.

3) 임미혜, 앞의 논문, 17면 이하.

외부적 행동을 학살이라는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가치 체계를 구성한 경우라 볼 수 있다.

증오범죄라는 개념이 포괄하는 다양한 범죄유형들은 공통적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그 기저에 '증오'라는 가치체계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가치체계에 기반을 둔 반사회적이고 형법상 비난가능성 있는 일련의 행위 태양들을 통틀어 증오범죄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증오범죄 유형화의 의미

증오범죄라는 개념이 포괄하는 다양한 범죄유형들이 가지는 공통점을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증오범죄라는 개념은 그 포괄적 범위를 나타내는 일종의 범위설정에서 더 나아간바 아니다. 사실 증오범죄란 범죄자의 증오나 편견이 동기가 되어 발생하는 전통적인 범죄에 불과하고 독립적인 범죄유형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살인, 강도, 성폭력 등과 같은 범죄들이 그 증오나 편견 등의 범죄동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 증오범죄로 분류될 수 있다.[4] 즉, 과거 어느 때로부터건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증오범죄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개념의 정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뿐더러 특히 그 다양한 범죄유형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방안들을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여기에 바로 증오범죄에 대한 유형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증오범죄는 보통 범죄보다 더 심각한 침해를 초래한다. 미연방대법원은 증오범죄 피해자는 일반범죄의 피해자보다 더 큰 정서적·심리적 고통을 받는다고 했으며, 증오범죄의 폭력은 매우 야만적이며, 타락이 완벽하고 취약성이 편재하기 때문에 증오범죄 피해자는 비증오범죄 피해자보다 더 큰 심리적 장애를 보인다고 한다.[5] Herek과 그 동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 피해자들은 높은 수준의 우울증 등 스트레스를 경험하였고, 사후에 이 증상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이러한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 일반범죄 피해자보다 약 2배 이상의 심각성을 보인다고 하였다.[6]

---

4) 조철옥, "증오범죄의 독립범죄유형화 및 사이코패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찰연구논집」 제4호, 2009, 11면.

5) 양문승·이훈재, "증오범죄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원광법학」 제24권 제4호, 2008, 173면.

6) M. G. Herek et al., "Hate Crimes Victimization among Lesbian, Gay, and Besexual Adults: Prevalence, Psychological Correlates, and Methodological Issu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2), 1997, pp. 195-215(양문승/이훈재, 앞의 논문, 173면에서 재인용)

이처럼 증오범죄는 법익침해 정도의 강력성 및 피해정도의 중대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역사적 요소 등의 상대적이고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함에 따라 개념정의에 있어서부터 상당한 난점을 가지고 있고, 개별적 유형화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증오범죄는 그 행위 동기나 목적에 있어서 사회학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행위태양과 형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보호법익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그에 대한 응보 혹은 위하 효과를 노리는 형법상의 일반 범죄들과는 크게 다른 부분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범죄자에 대한 응보나 처벌에 대한 고민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기저에 내재된 증오의 유형과 그러한 유형의 증오가 범죄 행위로써 외부로 표출되는 행위태양들을 유형화 하고 그에 따른 개별적 원인분석과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는 비단 형법학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학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병행되어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본다.

III. 증오범죄의 유형

증오범죄의 유형화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증오범죄가 그 동기와 원인에 있어서 '증오'라는 가치체계를 내재하는 한, 단지 그러한 가치체계를 반영할 뿐인 외부적 행위태양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증오범죄를 유형화함에 있어 살인범죄, 방화범죄, 성범죄 등의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유형화는 증오범죄를 유형화하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를 놓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증오범죄를 유형화하는 것은 다양한 행위태양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들이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증오'의 종류와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증오범죄의 유형화는 다양한 증오의 원인에 대한 고찰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최대한 그 다양한 증오들이 가지는 근원적이고 핵심이 되는 공통적 원인들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에 대한 국내연구는 아직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에는 McDevitt과 Jack Levin 그리고 Bouman이 각자의 저서를 통해 시도한 몇 가지의 유형화를 살펴볼 수 있고, 1990년에 '증오범죄통계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미국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증오범죄의 정의

및 유형화를 살펴 볼 수 있다.[7]

1. 미국의 증오범죄 유형

미국의 증오범죄통계법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 치사, 강간, 폭력, 위협, 방화 그리고 재물의 손괴나 파괴 등의 범죄를 포함하는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또는 민족색을 바탕으로 한 편견의 증거가 분명한 범죄"라고 증오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8] 미국의 경우에는 증오범죄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편견이라 보고 주로 일차편견에 의한 증오범죄, 즉 사회적으로 강자에 의한, 약자 및 소수자를 향한 범죄를 증오범죄로 보고 있다.

이처럼 증오범죄의 유형을 편견의 종류로 유형화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9], 미국 FBI의 2006년 통계자료에서 대부분의 증오범죄는 흑인에 대한 백인범행이며, 이들 범행은 대부분 단순 폭행이나 위협을 내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중에 51.8%가 인종적 편견에 의해서, 18.9%가 종교적 편견에 의해서, 15.5%가 성적 성향에 대한 편견에 의해서, 12.7%가 국적이나 민족성에 대한 편견, 그리고 1.0%가 장애로 인한 편견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먼저 인종 편견에 의한 범죄는 총 4,737건으로, 66.2%는 반흑인 성향에 의하여, 21.3%는 반백인 성향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4.9%는 아시안 및 태평양 섬의 주민들에 대한 반대성향으로 발생하였다고 한다. 1.5%는 반아메리카인디언 및 반알래스카원주민 성향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6.1%는 하나의 인종이 아닌 여러 인종의 복합적 성향으로 발생하였다고 한다.

종교적 편견에 의한 범죄는 총 1,597건 발생하였고, 그중 64.3%는 반유대 성향, 12.0%는 반이슬람 성향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한다. 5.1%는 반가톨릭 성향, 3.9%는 반프로테스탄트 성향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0.5%는 무신론자에 대한 편견으로 발생하였고, 5.5%는 한 종교가 아닌 여러 종교에 대한 반대 성향으로 발생하였으며, 8.8%는 기타종교의 반대적 성향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한다.

성적인 편견에 의한 범죄는 총 1,415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62.3%는 남성동성애자에 대한 편견, 20.7%는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 13.6%는 여성동성애자에 대한 편견, 2.0%는 인간이 아닌 다른 종에 대한 성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으로 발생하였으며, 1.5%는 양성애자에 대한 편견으로 발생하였다고 한다.

---

7) 양문승 · 이훈재, 앞의 논문, 170면 이하 참조.

8) 임미혜, 앞의 논문, 13면.

9) 양승문 · 이훈재, 앞의 논문, 182면 이하.

마지막으로 민족성이나 국적 등에 대한 편견으로 총 1,233건의 범죄가 발생하였고, 그 중 62.4%는 반히스패닉계 성향에 의해, 37.6%는 다른 민족이나 국적에 대하여 발생하였다. 그 밖에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총 94건의 범죄가 발생하였고, 그 중 74건은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 20건은 신체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발생하였다고 한다.[10]

2. 우리나라의 증오범죄 실태 및 그에 따른 유형화

우리나라에서도 증오범죄의 유형화를 시도한 바가 없지는 않은데, 예컨대 목적을 기준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편향된 신념에 의하여 특정대상에 물리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신념형, 여성에게 박대 받았다고 생각하여 여성만을 대상으로 강간 내지 살인을 행하거나 경제적 상류층을 대상으로 강도 내지 살인을 행하는 복수형, 특별한 대상 없이 또는 이유 없이 증오에 의해 불특정 대상에 대한 무연관형 등 세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분류한 경우도 있다.[11] 그러나 이와 같은 분류는 단순한 대표적 행위양태의 나열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에 반해 편견의 종류나 동기에 따른 미국의 유형화는 보다 체계적인 분류로써 증오범죄의 다양한 행위태양들을 포섭할 수 있는 적절한 유형화의 예라고 생각한다. 다만, 편견의 종류에 의한 유형화는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미국 특유의 자유주의적 색채가 그다지 짙은 편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개인의 권리(Right)를 미덕(Virtue)으로 강조하기보다는 공동체적 도덕(Moral)을 미덕(Virtue)으로 강조해온 면이 강하게 작용한 까닭에 타인에 대한 개인의 편견은 사회공동체적 차원에서 교정받을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종교적 편견 혹은 성적 편견 등에 의한 분류가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증오범죄의 상당수도 그러한 편견의 영향을 받은 형태임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

10) 그 밖에 동기에 의한 분류로 ① 스릴추구적 증오범죄(thrill-seeking hate crimes), ② 반응적 증오범죄(reactive hate crimes), ③ 사명적 증오범죄(missionary hate crimes), ④ 조직화된 증오범죄(organized hate crimes), ⑤ 자기 정체성 갈등 유형적 증오범죄(identity conflictive hate crimes) 등이 있다(McDevitt, "The study of the chracter of civil rights crimes in Massachusetts(1983-1987)",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Reno, Nevada, November, 1989, pp.7-10(조철옥, 앞의 논문, 13면 이하에서 재인용)).

11) 양원규·배철호·정우열·조두원, 범죄학 제대로 알기, 백산출판사, 2012, 120면.

국에서처럼 굉장히 일차적이고 뚜렷한 편견에 의한 가치체계에서의 일정한 방향성만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구조나 개인적·환경적 요소들의 개입에 의해 형성된 이차적 편견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12]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원초적이고 일차적인 편견이 범죄행위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순수한 작동기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인종차별적 편견과 같은 아주 근원적이고 일차적이며 본능적인 편견에 의한 증오범죄나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의한 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 민족국가에서는 미국에서처럼 큰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종교적 편견에 의한 증오범죄 역시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다민족 국가에서의 테러행위 등의 증오범죄와 비교하면 이를 분류의 기준으로 삼아 독립범죄로 유형화하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식의 유형화가 가능할 것인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오범죄는 그 행위태양과 동기 혹은 목적이 매우 다양한 까닭에 개별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증오라는 가치체계가 가지는 특성상 각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사회·문화적 배경 및 그에 따른 범죄의 양태를 경험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각 사회별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증오범죄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우리나라 증오범죄의 실태

우리의 경우는 일차편견에 의한 증오범죄보다는 주로 이차편견에 의한 증오범죄가 행해진다고 볼 수 있다. 그 범죄자는 대부분 빈곤 내지 결손가정의 불우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로 범죄 형태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살인·방화 등 강력범죄로 나타나고 있다.[13]

(1) 살인범죄

증오범죄 유형으로서 살인은 거의 연쇄살인으로 나타나는데, 예컨대 1994년 4월부터 9월까지 범죄 집단 지존파가 저지른 엽기적인 연쇄 살인사건[14], 2003년 9월부

12) 양문승·이훈재, 앞의 논문, 171면.

13) 양문승·이훈재, 앞의 논문, 177면.

14) http://terms.naver.com/entry.nhn?cid=830&docId=920643&mobile&categoryId=830, 한국근현대사사전, 한국사사전편찬회 엮음, 가람기획, 2005. 빈부격차에 대한 사회현실에 불만을 품은 김기환·강동은·문상록 등 6명이 부유층에 대한 증오를 행동으로 나타내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지존파라는 범죄단체를 조직, 전남 영광군 불갑면 금계리의 지하실 아지트에 창살감옥과 시체소각 시설을 갖추고, 1993년 7월 충남 논산에서 최미자를 성폭행한 후 살해

터 부유층 노인들을 잇달아 살해한데 이어 2004년 7월까지 보도방과 출장마사지 여성 11명 등 모두 21명의 생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체를 토막 내어 암매장하는 등 엽기적인 연쇄살인을 범한 유영철사건[15], 2006년 4월 '제2의 유영철 사건'이라 불리던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사건[16], 2009년 1월 27일 검거된 강호순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저지른 여성 연쇄납치살인사건[17]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쇄살인범죄에는 부자에 대한 증오, 여성에 대한 증오, 사회적 편경과 차별에 대한 증오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방화범죄

방화범죄 역시 증오에 의해 많이 발생되는 우리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 준 증오범죄의 한 예로 존재한다. 먼저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을 들 수 있는데, 자신의 신병을 비관해온 김대한이 2월 18일 오전 대구시내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방화하여 큰 인명피해를 낸 사건으로 방화용의자 김대한은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었다.[18] 지난 2008년 2월 10일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숭례문 방화사건

한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9월 15일까지 4차례에 걸쳐 사람을 납치, 살해, 토막 내어 살해하는 등 엽기적인 연쇄살인 행각을 벌였다. 9월 16일 범인들이 모두 체포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두목 김기환을 비롯한 일당 6명 전원이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사형이 확정되어 11월 2일 교수형을 받았다.

15) http://terms.naver.com/entry.nhn?cid=550&docId=920677&mobile&categoryId=550, 한국근대현대사사전, 한국사사전편찬회 엮음, 가람기획, 2005. 이혼에 따른 여성혐오증, 부자에 대한 증오와 피해의식, 세상에 대한 복수심 등을 이유로 연쇄살인을 범한 유영철은 12월 13일 1심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데 이어 2005년 6월 13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16) 2006년 4월 연쇄살인범으로 체포된 정남규는 2월부터 4월에 걸쳐 주로 목요일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에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25건의 살인 및 강도상해 범행을 하고 또 2004년 5월부터 2006년 4월 사이에 10여건의 범행을 범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남규 역시 불우한 환경과 범죄경력, 좌절감, 그리고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무관심과 소외에 대한 증오심이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는 세상이 나를 버려 가난해 졌기 때문에 부자만 보면 죽이고 싶었다고 범죄동기를 밝혔다(조철옥, 앞의 논문, 36면 이하).

17)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345808&mobile&categoryId=200000329, 두산백과, 2013.5.14. 강호순은 2005년 10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처를 살해한 이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 서남부에서 연쇄적으로 여성 7명을 납치하여 살해하였다. 강호순에 대하여 1심과 2심에서 살인·현주건조물 방화치사·존속살해·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고 강호순은 상고하지 않아 2009년 8월 3일 사형이 확정되었다.

18) http://terms.naver.com/entry.nhn?cid=830&docId=920670&mobile&categoryId=830, 한국근현대사사전, 한국사사전편찬회 엮음, 가람기획, 2005. 당일 오전 10시경 중앙로역 구내에서 진천서 안심 방향으로 진행 중인 1079호 전동차의 3호차를 타고 가다가 인화물질이 든 피티병 2개를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객실에 던져 순식간에 전동차의 6개 객차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입 중이던 상행선 전동차 6량에도 옮겨 붙어 192명이

의 범죄자 채종기도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신축 아파트 건축부지로 수용되면서 토지보상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을 벌였다고 한다.[19]

2) 우리나라 증오범죄의 유형화에 대한 검토

이상 살펴보았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증오범죄 사례들은 불특정다수를 향한 연쇄살인·방화의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들어 증오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이자 전형적인 증오범죄의 형태라 하겠지만, 유형화를 위한 분류에 있어서는 그리 다양한 행위태양을 가진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행위태양은 전형적이라 볼 수 있고, 다만 그 동기에 있어서는 몇 가지 유형화가 가능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증오범죄를 편견의 종류에 따른 유형화가 그리 적합하지 않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러한 편견의 종류가 다양한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순수한 편견이 증오범죄의 원천으로 작용 한다기보다는 특정 환경이나 사회적 불만이 개인의 편견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형성된 편견은 사회적 불만의 표출구로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정도라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증오범죄를 유형화하면, 크게 사회적 증오를 동기로 한 경우와 개인적 증오를 동기로 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는 다시 추상적 증오를 동기로 한 경우와 구체적 증오를 동기로 한 경우로 나눌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다시 환경적 증오를 동기로 한 경우와 자기비관적 증오를 동기로 한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먼저 사회적 증오 중 추상적 증오를 동기로 한 경우는 개인이 속한 사회의 체제나 구조 자체에 추상적인 불만과 적개심을 품고 그에 대한 피해의식 등의 감정적 요인들로 인해 증오의 가치체계가 형성된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사회의 부유층에 대한 막연한 증오심을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지존파 사건이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사망하고 148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큰 인명피해를 냈다. 불은 상·하행 전동차 12량을 모두 태우고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진화됐다.

19)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316333&mobile&categoryId=200000329, 두산백과. 당시 소방차 32대와 소방관 128명이 출동하여 진화작업을 전개하였으나 오후 8시 40분경 발생한 화재는 자정을 넘긴 12시 25분경에 2층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고, 12시 58분경 2층이 붕괴한 뒤 1층까지 옮겨 붙어 새벽 1시 54분에는 누각을 받치고 있는 석축(石築) 부분만 남긴 채 전소하고 말았다.

사회적 증오 중 구체적 증오를 동기로 한 경우는 사회의 체제나 구조에 대한 불만과 적개심이 그러한 감정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떠한 구체적인 작용을 매개로 증오라는 가치체계의 형성을 이룬 경우라 할 수 있는데, 토지보상에 대한 불만을 매개로 범행에 나아간 숭례문 방화사건이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적 증오 중 환경적 증오를 동기로 한 경우는 개인을 둘러싼 특정 환경이나 성장 배경 등이 증오의 가치체계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이혼에 의한 여성혐오증이나, 불우한 가정환경에 의해 형성된 부유층에 대한 증오심 등을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유영철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 증오 중 자기비관적 증오를 동기로 한 경우는 개인의 처지에 대한 내적인 비관에 의해 증오가 형성되고 그러한 증오가 동기로 작용하여 범죄행위로 나아간 경우라 할 수 있는데, 개인의 지병과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Ⅳ. 증오범죄의 원인

물론 지금껏 살펴본 증오범죄의 유형화에 대한 논의들이나 그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분류기준 등이 어떠한 명확한 구분선을 제시하여 공식화시킬 수 있는 기준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증오범죄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태를 보일 수 있으며, 그 내적 동기 역시 분류나 유형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범죄자 개개인에 따라 나름의 복합적 가치체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위와 같이 분류하고 유형화하는 이유는 증오범죄가 갖는 행위태양의 강력성과 법익침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예방책이나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형사정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증오범죄들이 갖는 주요 공통점들을 최대한 추출하고, 그러한 공통점들에 입각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방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범죄원인과 관련하여, 롬브로조 등의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으로부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으로 대표되는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측면에서의 연구나 환경적 요인과 범죄의 연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등을 거쳐 최근에는 범죄원인에 대한 거시적 시각과 미시적 시각의 절충이론이라 볼 수 있는 통합론적 범죄원인론이 대두되고 있다.

사실 과거 많은 연구들로부터도 도출되는 결과는 범죄원인을 하나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범죄라는 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속성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호작용과정에서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20] 증오범죄의 경우에도 증오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인들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한 요인들이 증오범죄를 설명하는데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그러한 작동기재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개별적 원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증오범죄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원인들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 측면에서의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

1. 사회 · 문화적 측면에서의 원인

1)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는 사회 전반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최근에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증오범죄의 발생동기가 된다는 점에 대해 주목하게 되어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이 증오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사회적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불평등의 심화 속도보다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21]

사회적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 뿐 아니라 교육기회의 불평등이나 사회적 지위나 권력의 불평등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될 수 있는 만큼, 증오범죄의 동기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 중 사회적 지위나 권력의 불평등 혹은 그와 필연적으로 관련되는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증오범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부분은 경제적 불평등이라 볼 수 있다. 경제환경은 직·간접적으로 범죄의 정도와 종류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그 영향력은 통상 재산범죄에 크게 나타난다.[22]

빈곤과 범죄의 관련성을 보면, 종래의 연구결과에서 절대적 빈곤과 범죄발생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나, 빈곤이 범죄의 직접적인 원

20) 강맹진, 현대사회의 범죄, 대왕사, 2011, 91면.

21) 임미혜, 앞의 논문, 34면.

22) 공정식, 살아있는 범죄학, 마무리닷컴, 2010, 219면.

인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빈곤층에 수반되기 쉬운 열등감, 좌절감, 소외감, 가정 기능의 결함, 삶의 목표에 대한 포기 등이 매개가 되어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최근에는 절대적 빈곤에서 느끼는 박탈감보다는 경제사정이 좋아지면서 일정한 사회에서 개개인의 기대수준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심리적 빈곤 현상인 상대적 박탈감이 범죄에 관련된다는 것이 J. Toby에 의하여 주장되기도 하였다.[23] 사실상 현대사회에서는 인간의 일차적인 욕구들과 관련된 불만족들은 통상 경제적 여건에 대한 불만족을 통해 나타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러한 불만족들은 직접적이고 쉽게 개인의 가치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이 증오범죄의 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지존파 사건의 경우 빈곤계층에 놓여 있어 소외된 범인들이 경제적으로 풍요한 계층에 대한 좌절감이나 분노 등을 느껴 상대적 박탈감에서 구실을 찾고 있었으며, 실제 7명의 범인 대부분이 부모가 소작농을 하는 등 대단히 어려웠으며, 서남부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은 어린 시절 궁핍한 가정생활을 했고, 그가 밝힌 범행동기에서도 "세상이 나를 버려 가난해 졌기 때문에 부자만 보면 죽이고 싶었다"고 했을 정도로 경제적 불평등이 큰 원인이 되었다.[24]

2) 사회적 편견과 차별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앞에서 살펴본 경제적 불평등과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전술한 절대적 빈곤과는 다소 다른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즉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통상 상대적 빈곤에 의한 사회적 불평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상대적 빈곤의 경우에는 빈곤 자체의 범죄관련성보다는 직업, 교육, 가치관 등 다른 사회적 요인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다른 고찰을 요한다.[25]

미국의 경우, 증오범죄에 대한 입법에 있어서도 편견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편견이 증오의 범죄의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편견 자체가 증오범죄의 동기가 된다기보다는 상대적 빈곤에 의한 불평등으로부터 유래된 편견이 증오라는 가치체계의 형성에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편견 등의 원

23) 공정식, 앞의 책, 220면.

24) 양문승 · 이훈재, 앞의 논문, 190면.

25) 공정식, 앞의 책, 220면.

인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고립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폭력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26] 한 예로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의 경우, 범인은 거동이 불편하고 언어장애를 겪고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소한 문제라도 증폭된 형태로 지각하기 때문에 개인의 폭력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즉, 자신의 뇌졸중 이후의 어려운 건강상태가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면서 담당의사에 대해 분노와 적개심을 품게 되었고, 결국은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27]

3) 대중 매체의 영향

영화, 텔레비전, 신문, 잡지 등이 범죄의 질적·양적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있어 왔다. 특히 범죄보도나 드라마 등과의 연관성이 잔혹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열띤 논쟁에 휩싸이곤 했다. 특히 폭력에 관한 메스미디어와 범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설이 주장되고 있는데, 미디어에 의해 보도된 폭력에 접하는 것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오히려 범죄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기정화설과 미디어에 의해 보도된 폭력을 접하는 것으로 그것이 진실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시청자의 공격성이나 폭력성이 증가하여 범죄증가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는 촉진설이 대표적인 주장들이다.[28]

어떤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갖는지에 관한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그러한 미디어를 통해 받아들이는 정보를 어떤 형태로 수용하는지는, 다분히 수용자인 대중의 몫이지 미디어가 갖는 고유한 성질로 파악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디어를 통해 받아들일 수 있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정보들이 증오의 외부적 발현 형태에 촉매제 역할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특정 미디어의 경우에는 증오의 동기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본다. 단적인 예로 사회적 불평등에 의한 증오범죄를 소재로 한 영화를 들 수 있는데, 영화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어떤 자(잠재적 범죄자)가 이러한 영화를 통해 직접적인 범죄 행위로 나아갈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전형적인 경우를 소위 'Copy·Capt 범죄' 라 할 수 있겠는데, 하스켈과 야브론스키에 의하

---

26) Griffin & Bernard, "Angry aggression among the truly disadvantaged", Police Quarterly 6(1), 2003, pp.3-21(양문승/이훈재, 앞의 논문, 189면에서 재인용).

27) 성한기·김교헌, "대구지하철 방화피의자의 방화행위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9권 제1호, 2004, 179면.

28) 김상균, 범죄학개론, 청목출판사, 2010, 280면.

면 폭력적 사회병질인격자는 마음에 품고 있는 폭력적인 환상을 다룬 글이나 역사적 자료를 찾고자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가공의 글을 보아도 어떤 영향도 받지 않지만, 일부는 그 내용을 왜곡해서 범죄를 실행하는 모델로 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29]

2. 개인적 측면에서의 원인

1) 생물학적 원인

뇌는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뇌의 다양한 부위에 분산된 모든 감각적 요소들은 다양한 지각방식에 자극받은 신경원 집합체들이 기능을 서로 연결하여 성적 흥분과 공격성 같은 복잡한 행동 양식뿐만 아니라 사랑과 증오 같은 복잡한 감정 상태를 만들어 낸다.[30]

뇌의 작용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다양한 면을 보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호르몬 분비작용과 관련된 경우이다. 예를 들어 남성의 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공격적인 성향이 많아지며, 일반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남성에게서 이러한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선천적 저혈당증과 같은 경우에는 '현저한 공격성, 흥분성, 의지력 약화, 도덕의식의 박약, 격정성, 저항성, 성적 충동의 증가' 등을 야기하여 범죄의 원인이 되며, 칼슘의 부족도 '흥분성 및 정서불안정'을 초래하여 폭발적인 공격성을 표출하게 한다고 한다.[31]

대구지하철 방화범의 경우에도 사건 2년 전에 뇌경색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입원 및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본인과 가족들의 진술에 의하면 뇌졸중 이전에 비해 뇌졸중 발병 이후 성격이 더 급해지고 화를 잘 내게 되었다고 하였다. 결국 그가 느낀 분노와 적개심 및 사회적 고립감이 뇌손상에 의한 공격 통제 불능 상태에서 분노와 공격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마침내 지하철에 방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32]

2) 가정적 원인

---

29) 김상균, 앞의 책, 281면.

30) 양문승 · 이훈재, 앞의 논문, 186면.

31) 강맹진, 현대사회의 범죄, 대왕사, 2010, 101면 이하.

32) 성한기v김교헌, 앞의 논문, 175면 이하; 임미혜, 앞의 논문, 45면.

어떤 사회든 사회가 불안하고 보호기재가 취약할 때 사람들은 가족에게 의존한다고 한다. Robert Bierstedf는 인간에게 있어 가정은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해체되거나 제 기능을 못할 경우 사람들은 불안감과 기댈 곳의 부재로 인해 일탈과 범죄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33]

범죄의 다양한 원인 중의 하나로 가정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지속 되어왔다. 문제 있는 가정에서 성장한 모든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의 사례에서 본 범죄자들 대부분의 어린 시절을 분석해 보면 과도한 외상적인 경험, 신체적이거나 성적인 학대, 사랑하고 관심을 주는 부모 대상의 명백한 부재가 이들의 생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들을 정신분석적으로 탐색해 보면 원시적 환상 세계가 가학-피학적 상호작용으로 뒤덮였고, 가학적 대상에 대한 완전한 복종의 유일한 대안으로 권력 추구만이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한다.[34]

결국 가정의 역할과 가정을 이끌어가는 부모의 역할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고, 가족 구성원들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도 모든 사람이 불건전하거나,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자들을 분석해 보면 가정의 역할 부재가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증오범죄의 경우, 지존파 사건의 경우에도 범인 7명중 5명이 성장기에 부모가 이혼하거나 사망하여 편부(모)나 계부(모)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유영철의 경우에도 부친의 과음과 외도, 폭력 등으로 혼란스러웠던 어린 시절을 보냈고, 서남부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 역시 부친은 알코올 중독자여서 편모슬하에서 궁핍하게 성장하다시피 했던 것이다. 결국 부모의 역할부재로 인한 가정의 역할부재가 범죄인들의 성장기에 정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주어 범죄로 내몰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35]

또 이러한 역할부재는 통상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한데, 그러한 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가정적인 요소들이 증오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할 때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을 경험하거나 보아온 청소년들은 폭력에 대한 가치를 학습하게 되고, 그 결과 폭력을 내면화하게 됨으로써 공격적인 성인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높음이 지적된다. Fisher는 이러한 경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정신건강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혼돈, 분노, 죄책감, 두려움, 수치, 외로움을 나타내고, 또 학대받은 어머니를 목격하고 자라는 자녀는 폭

33) 양문승 · 이훈재, 앞의 논문, 187면 이하.

34) 임미혜, 앞의 논문, 48면.

35) 양문승 · 이훈재, 앞의 논문, 187면.

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고, 가출이 많으며,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 등 부정적인 정신 건강을 경험한다고 한다.[36]

3) 심리적 원인 및 종합적 측면에서의 고찰

증오범죄의 원인에 대해 고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원인이 바로 심리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생물학적 측면에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주변 환경이나 사회적 요인에 의해 후천적으로 형성된 부분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증오라는 가치체계가 투영하는 가장 큰 심리적 요소는 공격성과 혐오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격성은 타인을 신체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또는 물건을 파괴하기 위해 실행하거나 시도하는 사회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37] 그리고 혐오감은 무언가를 병적으로 싫어하거나 배척하는 감정을 말하는데, 이러한 공격성과 혐오감 등은 발생의 초기단계에서는 타인을 향할 수도 있고 스스로를 향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방향성이 특히 외부로 향할 경우에는 그러한 부정적 감정들의 해소라는 목적이 범죄의 동기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 증오범죄의 경우는 종국적인 범행 동기로써 증오가 완성된 형태가 결국 심리적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증오는 심리적 요소를 핵심으로 하는 일종의 가치체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나라 경우에 있어서 증오범죄의 원인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원인들을 병렬적인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심리적 원인과 여타의 원인들이 갖는 위상의 차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증오범죄로 나아가기 직전의 범죄자의 내적 가치체계는 증오라는 형태로 이루어진 상태이고, 그러한 가치체계를 형성하게 하는 종국적이고 완성된 형태의 동기는 특정 집단이나 타인에 대한 공격성과 혐오감 등의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심리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보았던 사회·문화적 측면 혹은 개인적인 측면의 다양한 요소들은 그러한 직접적 동기가 형성되기 전 단계에서 그러한 동기를 형성하는데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

36) 김재엽 · 송아영, "가정폭력노출경험과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대한 연구 :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제23호, 2007, 105면.

37) 임미혜, 앞의 논문 47면 이하.

V. 증오범죄에 대한 예방가능성

증오범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증오라는 가치체계가 만들어내는 폭력의 양적 중대성과 질적 잔인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증오와 폭력 자체가 갖는 이성적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 것은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는 극히 최근에 이르러서이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유럽의 중세나 동양의 근대이전까지만 해도 그러한 폭력 자체는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다. 근대에 이르러서야 이성철학과 인권철학의 발전을 통해 증오가 비이성적인 감정적 가치체계임에 동의하게 된 것이고, 그에 따른 폭력의 정당성을 부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즉, 역사적으로 편견의 종류나 동기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었을지는 모르나, 약한 정도의 증오범죄이건 강한 형태의 증오범죄이건 간에 증오범죄는 꾸준히 발생되어 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어느 사회에서나 과거 어느 시점까지는 그러한 폭력의 정당성이 인정받아 왔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각 사회의 법률에 의한 처벌이라는 사후적 문제는 잠시 미뤄두도록 하더라도, 과연 오랜 시간 지속되어온 증오범죄에 대해 예방은 가능한 것일까? 물론 이에 대한 논의가 일반적인 범죄 예방과 관련된 숱한 논의와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모르겠으나, 적어도 증오범죄가 갖는 법익침해의 중대성과 유형화의 어려움 및 행위태양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비교적 체계적으로 유형화되어 개별적·구체적으로 그 예방과 처벌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일반적인 범죄들과 비교하여 그러한 논의가 부족함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증오범죄도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그 예방책의 강구는 형사정책적 과제라 할 수 있으며, 형사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 지향점이라 할 수 있겠다. 다만, 증오범죄가 갖는 특징들에 비추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형사정책들을 통해 그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행 형법을 비롯한 각종 형사정책들이 비교적 범행의 고의나 목적이 뚜렷한 범죄들을 대상으로 성립된 까닭도 있겠지만, 보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되는 증오범죄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그러한 기존의 체계를 통해 포섭하고자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러한 시도가 그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그러한 시도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사회적 집단과 구조가 갖는 관성에 따라 아무리 새로운 문제라 하더라도 최대한 기존의 체계를 통해 포섭하고자 하는 것은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시도라 볼 수 있으며, 강

화된 처벌 기준의 설정이나 가중 처벌 법령의 제정 등의 대응이 잘못된 대응이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처벌의 강화는 형사정책적으로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증오범죄를 대한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은 그러한 시도조차 미흔적인 상태로 보인다. 우리는 지금껏 증오범죄를 그저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낳는 비극' 혹은 '아주 특별하고 강한 형태의 범죄', '예방이 불가능한 사회적 문제'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생각된다. 따라서 그 효과의 실효성을 논하기 이전에 먼저 명확한 법령의 제정을 위해서나, 효과적인 처벌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증오범죄가 갖는 본질적 문제에 대해 직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증오범죄 실태와 범죄자들의 심리상태 및 그러한 범죄의 동기를 형성케 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전제될 때 증오범죄에 대한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Ⅵ. 결론에 대신하여 - 예방 가능성을 위한 앞으로의 방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오범죄가 갖는 본질적인 문제는 그 동기의 형성 과정에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요소들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다른 여러 감정들과는 다르게 증오는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에 따라 그 형성 과정을 미리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설사 그러한 예측이 가능하다 해도 그러한 증오가 범죄로 표출될지 여부에 대해서 예측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일뿐더러, 예측에 성공한다 해도 그러한 예측만으로 사회나 법이 범죄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자에 대해 제재하는 것이 과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문제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겨야 한다. '증오범죄를 저지른 개인' 에 초점을 두어 그 개인의 처벌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논의에 앞서 증오범죄라는 특수한 형태의 범죄가 갖는 독립유형적 특성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형이 비교적 한정적이고, 동기형성에 원인으로 작용하는 요소들 역시 몇몇 특정한 공통점들을 갖고 있다. 역사적으로 예방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문제 혹은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갖는 피할 수 없는 특수한 문제라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수용적이고 체념적인 태도를 고착시키기 전에 우리는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

로 그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여 공통적 원인에 대한 미시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절대적 빈곤이나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같은 상대적 빈곤[38]이 증오라는 감정적 가치체계에 끼치는 영향 등은 심리학이나 사회학 혹은 교육학이나 경제학적 측면에서의 진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증오가 범죄의 동기로 작용하게 되는 메커니즘이나 유형별 증오범죄의 전후 징후 등에 대한 범죄학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 그러한 연구 결과가 다양한 사회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면, 예방가능성을 높이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증오범죄의 동기 형성에 미치는 다양한 원인들에 관한 문제는 형사정책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인문학적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원인들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각 원인들이 증오범죄의 동기 형성에 미치는 영향 및 증오범죄가 갖는 파급력 등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사회정책의 수립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영향들이 누적된다면 증오범죄의 예방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모든 범죄가 그렇듯 완벽한 예방이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증오범죄의 본질적 원인과 우리나라의 특수한 양태에 관한 진지한 연구 및 전 인문학적 영역에서의 진지한 협력적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적인 대처 방안들이 논의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제어 : 증오범죄, 연쇄살인, 방화, 편견, 범죄동기

38) 외에도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원인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강맹진, 현대사회의 범죄, 대왕사, 2011.

공정식, 살아있는 범죄학, 마무리닷컴, 2010.

김상균, 범죄학개론, 청목출판사, 2010.

김재엽 · 송아영, "가정폭력노출경험과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대한 연구 :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제23호, 2007.

성한기 · 김교헌, "대구지하철 방화피의자의 방화행위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9권 제1호, 2004.

양문승 · 이훈재, "증오범죄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원광법학」 제24권 제4호, 2008.

양원규 · 배철호 · 정우열 · 조두원, 범죄학 제대로 알기, 백산출판사, 2012.

이윤호, 현대사회와 범죄의 이해, 삼경문화사, 2004.

임미혜, 불특정다수를 향한 증오범죄의 원인에 대한 연구,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조철옥, "증오범죄의 독립범죄유형화 및 사이코패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찰연구논집」 제4호, 2009.

[Abstract]

The Type and Causes of Hate Crime

Kim, Hye-Jeong
Professor of Law School, Yeungnam University
Kwon, Ju-Hyuk
2th. of Law School, Yeungnam University

Crimes are continuously committed throughout the world and it has been problem for society. If we look back the history, there have been some serious crimes that triggered outrages in the society and hate crime must be one of those.

Hate crime caused by hate or bias has been in the primitive society, of course even today. These days it has to be a crime against a individual or groups. In Korea it have occurred as Jijonpa incident in 1994, Yu Young Chul incident in 2004 etc.

Korea authorities have not classified the pattern of hate crime legally and have not legalized the laws concerning hate crimes. The causes of these hate crimes are the flood tide of bias and economic inequality in the society and absence in the role of homes and domestic violence. Also, there are personal problems in the brain function not being able to control the rage or hostility and psychological problems.

Key Words : Hate Crime, Murders, Arson, Bias, Motivated Crimes